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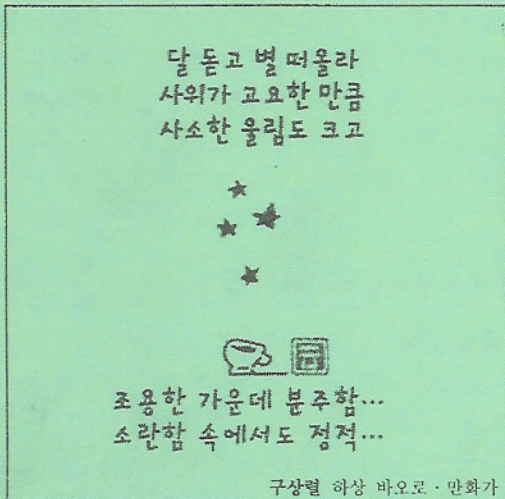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페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예수성심 성일)
제28권 31호(가해) 2008·6·29

[묵상]



그날 갈릴래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요한의 아들 시몬,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가진 것 모조리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사도가 되어
어둔 천지의 달처럼 우뚝 섰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모조리 잡아끌고 오겠다고
다마스쿠스로 길 떠난 사울,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죄악의 천지를 비추는 별이 되어 반짝인다.
이천년 동안 이어온 묵숨 바친 복음선포
고요함 속에 크게 울려 퍼지고
큰 울림 속에 작은 구원의 씨앗이 싹트네.(人)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불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종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생) 김수환 추기경님, 고천용과 고규재 체칠리아 가정, 김낙기 바오로, 성은혜 실미아 가정, 김풍길 바오로 가정, 장현숙 발바라와 정인식 베드로 가정, 엄은섭과 혜은 도로테아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이말가리다, 김창동 레이몬드, 박차갑 다두
	(생) 이금순마리아, 고천용과 체칠리아 가정, 이종민 요셉, 김숙희 심포로사, 새라 수정 칼란타, 이종원 베드로, 권오상 바오로가정, 김현오 바오로, 송일권 율리오, 폴황, 장수창 요한과 주란 마리아 가정, 박명자 크리스티나, 황철수 베드로, 황윤재 베드로,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28차 남녀 푸르실료 수강자와 봉사자들, 박상대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12,1-11

화답송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라.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안에서 자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뻐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 리 없으리라. 보라, 가엾은 이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셨도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 들레에 진을 친 당신의 천사가 그들을 구해냈도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복되다, 그 남게 몸을 숨기는 사람이여.◎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4,6-8.17-18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마태오(Matthew) 16,13-19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뢰었도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도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07	107
봉헌	266	266,234
성체	306	306,308
파견	218	218

14.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the immaculate conception)

마리아께서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 그 위대한 임무에 합당한 은혜를 받으셨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께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라고 인사하였다.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돌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조금도 물드시지 않게 보호되었다고 믿는다.

▶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the permanent Virgin)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리아께서 동정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고 나아가 평생 동정이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예수님의 출생은 마리아의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화하였다고 믿기 때문이다.

▶ 성모 승천 (the Assumption)

성모 마리아께서는 지상 생활을 끝내시고 하늘에 계신 아드님께 돌아가셨다.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것이다. 이 교리는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덕행과 품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인간의 목적, 죄, 죽음, 육신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죄에 물든 일이 없는 몸이셨기에, 당신 아드님처럼 그분의 몸도 무덤에 계시면서 죄가 세상에 가져온 죽음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예수님을 낳아 주신 분께서 육체를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부활한 영광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한 성모 승천은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가 된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모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시라고 공경하여 왔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께서 신앙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에서, 하느님께 향하는 사랑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봉헌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받으신 영광은 창자 우리도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므로 그분께서는 우리 희망의 표지이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굳은 신앙을 가지고 겸손과 순명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자. 그리고 매일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에 참례하며, 매일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침으로써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하자.

◆(CBCK 제공)

겸손한 신앙과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

오늘 우리는 2천 년 교회 역사와 함께하며, 특별히 로마 교회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입당송에서도 고백하듯, 그들은 육신을 지니고 사는 동안 자신들의 피로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진정 교회의 위대한 두 등불이며 굳건한 신앙으로 빛나는 두 사도에게 교회는 오늘 깊은 찬송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래아의 어부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삶의 터전이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선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바오로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스승이었습니다. 또한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의 겹옷을 갖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로 불리던 그가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잘 알려 줍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 완고했던 그의 마음을 땅에 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사도 9,4)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울이 박해한 그리스도교와 자신이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사울이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니아스에 의해 선포된 복음과 안수를 통해 비로소 보게 되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전해 주듯, 특별히 이방인들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바오로,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라고

대답하신 예수님. 이토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기에 하느님 생각과 인간 생각의 큰 차이가 드러납니다. 답이 올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여 감옥에 넘기는 일에 앞장섰던 바오로의 모습과 이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느님께서는 인간적 연약함 혹은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도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기도에서 말하듯, 모든 일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아 준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교회가 충실히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연약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도 그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노래하듯, 주님께서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늘 주님에 대한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기리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겸손한 믿음과 바오로가 지닌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끝난 후 우리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가 하고 있듯, 우리 역시 “나는 홀롭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나를 굳세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변종찬 마태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신중철 아브라함	최숙 클라라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최귀환 펠릭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자	우경석 사도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배영민 아나스타시아	황지영 안젤라	권순길 체칠리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7월

- ◆ 병자 영성체 : 3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 3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남구역
- ◆ 성모신심미사 : 5일(토) 오전 8시30분

2008 목요교리반 세례를 축하합니다.

오늘 주일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탄생한 21명의 형제자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 새 영세자 : 김도완 다니엘, 김희 수산나, 김에릭 라파엘, 김알렉스 미카엘, 남인구 야고보, 이경천 세례자 요한, 이남현 막시모, 이정아 리디아, 이주은 아네스,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숙자 안나, 오석만 사무엘, 정성희 스텔라, 정주연 글라라, 정상문 스테파노, 백지자 세레나, 조희숙 안젤라, 윤의숙 엘리사벳, 조영우 스테파노, 이태호 바오로, 이영호 요한

- 첫영성체 : 새라 수정 칼란다

* 축하식 : 낮미사 후 강당 *

대부모님들은 필히 참석해주시고, 영세자들이 속한 구역장과 반장님들의 참석도 바랍니다.

◆ FIAT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가톨릭 장학재단(FIAT)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에 본당에서 3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 일정 : 25일(수)~29일(오늘 주일), 애나하임
- 참가자 : 김정심 크리스티나, 이재용 안드레아, 서정우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 양业协会 임시총회 안내

- 안건 :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건
- 일시 : 오늘 주일(29일) 오후 1시30분, 유아실

◆ 남가주 남성 제28차 꾸르실료 수강자 파견예식

- 7월3일(목) 낮 12시, 성체조배실
- 수강자 : 최진수 에우세비오, 최재은 베드로 권진열 피데스, 정동호 하삼바오로
- * 본당 꾸르실리스타들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점심을 나눈 후 파견예식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 백삼위 성모신심 특강

- 강사 : 최경용 신부(부산 구포본당 주임)
- 일시 : 7월7일(월) 오후 7시30분~9시, 성전
- 대상 : 본당 전신자 및 타본당 신자

◆ 거룩한 독서 2단계(요한묵시록) 종강

거룩한 독서 '요한묵시록'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 실천함으로써 섬김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3단계는 '바오로 서간'을 할 예정입니다. 개강일시는 추후 알려드립니다.

◆ 주일 학생미사(오전9시30분)는 그대로...

백삼위 주일학교/한국학교가 여름방학 중(8월31일 주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주일 학생미사는 계속되고 있으니 학부모님은 자녀가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반첸시오회 어린이옷 판매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이 백화점(Nordstrom)에 납품하는 어린이(초등학교 기준) 옷을 매달 200장씩 기증해 주시기로 해서 반첸시오 기금으로 씁니다. 가격은 \$5 균일입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29일(주일) : P.V. 1/4반 (불고기 덮밥 \$3)
- 7월6일 (주일) : 사회복지분과 (스파게티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권순봉	권오상	김우용	김인열	김종선	성전헌금	강인모	권순봉	권오상	김우용	김인열	김준호
	김준호	박광자	박주현	박진수	송근섭	송호창		박광자	박주현	박진수	송근섭	송호창	신순철
	신순철	엄영희	우영주	원권희	유근태	육재민		우영주	원권희	육재민	이경태	이근태	이병우
	이경태	이관웅	이근태	이병우	이숙화	이윤무		이숙화	이윤무	이인석	이태옥	이효세	익 명
	이인석	이태옥	이효세	익 명	정충로	조영희		정충로	조영희	주태청	지경수	차정애	천광락
	주태청	지경수	차정애	천광락	최길주	최상규		최길주	최상만	최현찬	홍석인		
	최상만	최현찬	허정자	홍석인	홍선자								
	송마이클												
합계 : \$6,530							합계 : \$4,890						
미사헌금 : \$2,737							감사헌금 : 최현찬, 이관웅, 김풍길						

이 주간의 축일 (6월29일~7월5일)

축하합니다.

- 29일 : 베드로 사도, 바울로 사도, 가시오 주교, 엠마 수절, 살로메 동정녀
- 30일 : 테오발도 은수자, 마르시알 주교, 에밀리아나 동정 순교자, 루치아 동정녀
- 7월1일 : 도미니카노 원장, 루돌도 주교 순교자, 올리브 주교 순교자, 세르바노 주교, 유트바라 동정녀
- 2일 : 프로체소 순교자, 마르티아노 순교자, 오토 주교, 심포로사 순교자, 모네군다 수절
- 3일 : 토마스 사도, 베르나르디노 증거자, 아나돌 주교, 무스티올라 순교자
- 4일 : 울릭 주교, 오토 주교, 베르타 수절, 엘리사벳 여왕, 세바스티아 순교자
- 5일 :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아타나시오 원장, 안토니오 사제, 트리피나 순교자, 에다나 동정녀, 치릴라 순교자

남가주 소식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7월3일(목)~6일(주일)
- 지도 : 최석현 마르코 신부, 주최: 남가주 성령쇄신 청년봉사회
- 참가대상 : 18세~33세 미혼 및 기혼자
- 신청 : 6월20일까지, 회비 : \$170
- 장소 : 테메칼라 꽃동네 ☎ 714-458-4687 John Cho

남미 의료 봉사단 파견

- 일시 : 7월7일(월)~16일(수), 에콰도르 과야킬
- 지도 : 이영찬 사도요한 신부(LA 성 아그네스 성당 주임)
- 참가비 : \$1500 ☎ 213-272-7404 김안나

청소년을 위한 한국 꽃동네 봉사 및 성지 국토 순례

- 대상 : 8학년~12학년, 일시 : 7월9일(수)~22일(화)
- 인원 : 선착순 25명, 참가비 : \$500(비행기표 별도 구입)
- 신청문의 : 꽃동네 ☎ 951-302-3400

2008년 제21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일시 : 8월23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24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LA Technical collage, Grand Theater
400 W. Washington Bl. LA
- 강사 : 전달수 신부(남가주사제협의회장), 임언기 신부(미리내전주성삼성직수도회), 이태석 신부(살레시오수도회), 김두진 신부(예수고난회), 반병익 신부(성령쇄신봉사회지도)
- * 참가비 : \$25, ☎ 213-435-7570
- * 주관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이번 주 단체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최성자 카타리나 529-4337 7/18(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 카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7/11(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 아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7/19(토)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7/19(토) 오전 11시,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엄영숙 마리아 373-5662 7/18(금) 오후 7시,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박희자 마리아 791-3703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현창 야고보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박정희 마리아 800-3709 7/20(주일) 오전 11시, 델손 파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김희복 아네스 326-2283 7/13(주일) 오후 1시30분, 천교장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태 도미니 카	P.V. 구역 1,2,3,4반 합동 반모임 7/12(토) 오전 11시, 라이언 파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2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11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기념

“성 바오로의 해” 선포 (2008년 6월 28일 ~ 2009년 6월 29일)

성 바오로는 한 때 박해자였으나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한 사도로서 온 힘을 다 기울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였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화합을 위하여 역동적인 활동을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열렬한 신심으로 사도를 공경해 왔고 지금도 공경하고 있다. 이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성 바오로 사도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여 ‘성 바오로의 해’를 선포하였다. 보편교회인 가톨릭교회 측면에서 ‘일치’와 ‘화합’을 강조하신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성 바오로의 해’를 지내면서 그리스도 신비체의 모든 지체들 사이에 완전한 일치가 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교령]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기념 특별 전대사 수여

사도들의 으뜸이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앞두고, 교황 성하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시의 적절하게 영신의 보고를 열어젖히고자 하신다. 그리하여 신자들이 언제나 받아들여야 할 구원 계획을 이 거룩하고 기쁜 기회에 새롭고 힘차게 받아들여, 특별히 탄생 2000주년을 맞이하는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대축일 제1저녁기도부터 열렬히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실제로 교황님께서 보편 교회에 수여하시는 전대사의 은총은 최상의 내적 정화를 이루도록 도와, 신자들이 복되신 바오로 사도에게 영예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초자연적 삶을 복돋우고 선행의 열매를 거두도록 이끈다. 따라서 교황 성하께서는 바오로의 해 동안 베풀고 받는 전대사에 관한 교령을 준비하고 작성할 임무를 이 내사원에 맡기셨다. 내사원은 교황님의 뜻에 따라 이 교령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은사를 아낌없이 배분다.

1. 모든 신자는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정화되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 대성전인 오스티엔체 거리의 성 바오로 대성전을 경건하게 순례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이미 그 죄과에 대하여는 성사를 통해 사면 받고 용서 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 벌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베푸는 전대사를 받는다. 신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지정된 조건을 채울 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범에 따라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룩한 순례 때에 바치는 기도가 신자들에게 성 바오로 사도를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더 강렬히 복돋우고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규정한다. 신자들은 각자 개별 신심에 따라 성체 제대 앞에서 하느님께 개인 기도를 바친 다음, 고백의 제대에 가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 신경’을 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바오로에게 바치는 경건한 간구를 덧붙인다. 또한 그러한 신심 행위는 언제나 사도들의 으뜸인 성 베드로에 대한 기억과 이어져야 한다.

2. 여러 지역 교회 신자들이 전대사의 일반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죄로 기우는 온갖 성향을 끊어버리고, 공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곧, 바오로의 해를 장엄하게 시작하고 마치는 날에는 모든 성당에서, 또 지역 직권자가 정한 다른 날들에는 성 바오로의 이름을 지닌 성당에서, 또 지역 직권자가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그리 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질병이나 다른 정당하고 중요한 이유로 장애가 있는 신자들도 언제나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되도록 빨리 전대사의 일반 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성 바오로 사도를 공경하는 경축 행사에 영적으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의 기도와 고통을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관할 교회 권위가 임명한 고해 사제들은 언제나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자들을 맞이하여 신자들이 이 천상 은혜를 더 쉽게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교령은 바오로의 해에만 유효하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교황청 로마 내사원 교령 / 주님 강생 2008년 5월 10일 /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 / 내사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탠포드
추기경 + 부원장 잔프랑코 지로티 주교